

명절쇠기활동*

이영숙**
신선미
이영희

- I. 명절쇠기 수련거리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 II.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기본특성 및 내용
- III.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구성방법
- IV.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모형
- V.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단위활동 사례

I. 명절쇠기 수련거리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소년들은 어른을 너무 모르고 예의에 어둡다는 비난을 흔히 받는다. 사실 요즘의 아이들은 편한 것을 좋아하여, 격식을 갖춰 전통예절을 지키는 것을 감각적으로 거부한다. 청소년들은 “전통”하면 고리타분하고 불편하고 도무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사장되어야 할 유물쯤으로 안다. 대신, 그들은 서구문화를 편하고 실용적이고 젊은 아이들 정서에 맞는 문화로 간주한다. 그래

서 청소년들은 나이프는 오른손에 포크는 왼손에 든다는 서양의 식사예절은 잘 알지만 국은 오른쪽에 밥은 왼쪽에 놓는다는 전통예법의 기초는 잘 모른다.¹⁾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구식이라고 배격하는 이유로 우리 예절에 현재 산업사회의 생활환경과 잘 맞지 않는 전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은 확실하다. 긴치마를 늘어뜨리고, 외관과 형식을 중시하며, 모든 감정이 억제된 듯한 정직한 행동이 청소년들에게는 답답하기만 한 것이다. 그러나 서양문화에도 그 나름의 규범이 있어 따라서 할 형식과 절차의 예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의 예절만이 허례허식으로 배격되는 이유는 기성세대가 전통문화 가운데서 지켜야 할 요소는 지키고, 의미는 살리면서 현대 생활 여건에 맞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계울리 해왔기

* 이 논문은 본원의 1992년도 연구사업인 “명절쇠기활동”을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 개별원의 이영숙(연구위원), 신선미(연구원), 이영희(연구원)임.

1) 한국일보사(1990),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상), 한국일보사, p. 194.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젊은 세대의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송두리채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풀무질을 가한 것이 기성세대의 상업주의다. 수익성만 높으면 마구 들여온 서구식의 입을 거리와 먹을 거리로 인해 아이들은 전통문화로부터 뿌리채 단절되었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대부분 토지를 중심으로 한 대가족 중심의 농경사회로서 사회적 결속이 잘 되어 있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대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사회규범을 익혔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일과 가정이 분리되어 구성원이 흩어져 고립되고 가족성원과의 접촉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 깊숙히 침투한 대중매체에 의해 부모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또한 젊은 부모들은 아동중심의 교육이론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자녀들을 거의 과잉보호 또는 방치의 상태로 길렀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공동생활의 원리인 예절을 교육받지 못하고, 세대간 합의를 어렵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사회적, 개인적 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가정 밖에서 나마 전통의 예절과 예절의 정신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몇가지 상황들이 바로 명절쇠기 수련거리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다. 현재의 전통문화 복구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산업사회를 전제로 모색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통예절의 수련은 실용적인 것을 선호하는 현대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게 그 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용적인 예절의 내용이 구체적인 행동지표로 제시되고 청소년들의 생활속에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명절쇠기 수련거리는 최근 청소년의 서구중심 취향을 극복하고 우리의 뿌리를

찾으면서 공동생활을 위한 예절을 몸에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여섯가지에 목적을 두고 개발되었다. 첫째, 서구화 일변도인 청소년의 하위문화 추세에 반하여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중요한 명절과 관련된 전통예절의 재발굴을 통해 우리 청소년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둘째, 전승되어야 할 명절의 정신과 세시풍속을 익히는 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한다. 셋째, 우리의 전통예절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활동하게 한다. 넷째, 전통예절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이런 명절쇠기 수련거리를 통해 전통문화의 한 요소인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함양한다. 여섯째, 전통적인 명절의 정신을 현대에 적용하여 협동정신과 질서의식을 통해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명절쇠기 수련거리 개발의 일반적인 기대효과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동적인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청소년들이 전통예절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다.

II.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기본 특성 및 내용

1.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기본 특성

명절쇠기 수련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가능한 한 동원하여 청소년들이 경험을 위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러나, 명절쇠기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전통예절만 분리하여 배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깔린 정신을 함께 배워야 한다. 그런 연유에서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참여자간의 협력심, 공동체의식을 나눌 수

있고 민족얼이 스며든 수련거리를 개발하고자 시도했다.

그런데, 각종 수련거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자연체험활동(19.6%), 스포츠활동(18.8%) 다음으로 예절수련활동(17.7%)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영역 조사항목에서는 예절활동(2.9%)이 맨 끝에서 두 번째로서 선호도의 최하위권에 속한다.²⁾ 즉 청소년들은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되, 실제 수련거리로는 참여하기 싫어하고 있다. 따라서, 명절쇠기 활동은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여덟가지의 예절활동 뿐만 아니라 명절음식 만들기 활동, 공예품 만들기 활동, 명절놀이 활동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흥미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삽화를 넣어 각 부문의 특징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참여자의 전통예절 실습을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해, 놀이의 경우 원형을 소개하고, 또 변형도 소개한 것이다. 예절수련은 개인의 수신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것인데, 놀이와 만들기 자체의 진행과정에서도 집단의 사회성이 습득되므로 전통예절수련을 놀이활동이 보완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상업주의적 소비문화의 만연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공예품을 명절에 선물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실습하니 견전한 명절 소비생활을 접할 기회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할 점은 우리전통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과 역행하는 권위주의적이거나, 남녀 차별적 요소는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는 것이다.

수련거리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광범하고 다양하게 보급되어야 하므로 많은 청소년단체와 관련 기관이 다양한 집단의 청소년을 위한 전통예절 수련에 명절쇠기 수련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시대상은 국민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균로청소년들이다. 활동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수준에 따라 여러가지 예절활동, 공예품만들기, 명절음식 만들기, 명절놀이 활동 중에서 각 집단에 적절한 것으로 선정하여 배치하면 된다. 참가인원은 숫자가 너무 많으면 개별적으로 실기 지도를 받을 기회가 적어, 한정된 시간내에 동작을 습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또래집단 중에서 보조지도자를 미리 선정하여 훈련시킨 후 시범을 보이고, 참가자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동작을 보조지도할 경우 훨씬 능률적 일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일반지도자 한 명과 보조지도자 수명으로 100~200명까지를 한꺼번에 수련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련거리는 일반지도자(전문가가 아닌 경우를 말함)도 프로그램집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므로 반드시 전문지도자를 각 분야별로 강사로 초빙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전문지도자를 초빙할 수도 있다.

2.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내용

이 수련거리는 크게 다섯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프로그램집의 첫 장에서는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개발취지 및 특성을 밝히고 수련거리 실시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수련거리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제 2장은 수련거리 실시에 있어서 각각의 단위활동과 관련하여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기초 지식이다. 그 내용으로는 4

2) 박명윤 외(1991),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pp. 27-28 33-34.

대 명절(설, 정월 대보름, 단오, 한가위)과 관련된 생활예절에 중점을 두면서, 명절의 유래와 풍속, 명절의 옷차림과 의생활예절, 명절음식과 식사예절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각 명절의 특징을 보면, 설날의 풍속은 개인단위로, 집단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상하관계에 따른 종적체계와 가족단위의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다. 반면에 대보름의 풍속은 한 마을을 단위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마을 전체의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단오의 여러 행사는 역사(사악한 기운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 및 더위를 막는 신앙적 관습,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행위, 그리고 더운 여름에 신체를 단련하는 민속놀이가 주를 이룬다. 추석의 풍속은 가을 추수의 감사를 온 가족이 기원하는 추수감사의 성격을 띤다.

명절의 옷차림과 의생활예절에서 한복의 경우 한복의 유래와 특색, 청소년에게 어울리는 명절의 옷차림을 소개함으로써 한복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양복의 경우 엄격히 서양식으로 따르기 보다는 우리실정과 맞게, 그리고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그리고 집안에서, 학교에 갈 때, 외출할 때, 생일, 입학식, 졸업식, 혼인식 등의 행사나 의식에 참여 할 때 예의에 어긋나는 차림을 지적하여 그런 것들은 삼가하도록 친절히 일러두었다.

식사예절에서는 상차림의 규범과 다과예절을 중심으로 앉는 자세, 수저를 쥐는 방법, 음식을 씹거나 마시는 방법, 대화의 예절 등 우리 청소년들이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일러두었다.

제 3장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단위활동은 실시

대상과 시기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되었다.³⁾ 예절활동과 청소년들이 명절쇠기 수련거리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활동들로서 명절 음식만들기 활동, 공예품만들기 활동, 그리고 명절놀이 활동이 개발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단위활동의 실시 장소, 시간, 방법, 준비물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예절활동은 청소년들이 예절을 몸에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된 단위활동들로서 명절쇠기 수련거리에서 핵심이 되는 활동이다. 예절활동의 각 단위활동들은 실제로 지도할 수 있게 실현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혼히 예절지도는 지루하기 쉬우므로 활동을 동적으로 지도하도록 시도했으므로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움직이면서 경험·실습하도록 했다. 그리고 단위활동의 특징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도안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일반지도자도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방법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명절음식만들기 활동은 청소년들이 명절의례 준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공예품 만들기 활동은 준비물, 지도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했고, 나이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제시한 것도 있다. 물론 이것은 대상에 따라 힘들지 않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명절놀이 활동에서는 각 놀이의 유래, 준비물, 지도방법을 기술하였다. 특히, 명절놀이 지도방법은 도입과정, 전개과정, 정리과정으로 나누어 도입과정은 유래 및 종류 등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전개과정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패나누기, 어떻게 놀이를 할지를 설명한 것이고, 정리과정은 놀이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사회성을 익힐 수 있도

3) 단위활동이란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명절쇠기 수련거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 내용이다.

록 작성되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 가지 놀이를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변형해서 소개하여 수련 대상에 따라 한 가지 놀이에서도 여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제 4장 명절쇠기 수련거리모형은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구성방법과 수련거리의 사례로 이루어졌다. 이 장은 참가대상, 시기, 기간등에 알맞게 명절쇠기 수련거리를 구성하는 방법과 그 모형을 제시한다. 수련거리 구성방법으로는 단위활동의 선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기술하였고 또 단위활동의 조직에서는 선수학습 관계, 시간배치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수련거리의 실시에서는 홍보활동, 자료제작, 지도자 선정, 보조지도자 활용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과정에서 유의할 점으로는 이론적인 면과 실기의 조화를 잘 이루도록 단위활동을 배치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수련활동의 평가 방법으로 수련거리 자체에 대한 관계자의 평가와 수련거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반응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소개되었다.

프로그램집의 마지막으로 부록 편에서는 각 지도교사들이 명절쇠기 예절수련을 실시하는데 관련된 사회단체 및 연구기관을 소개하여 수련거리 실시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III.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구성방법

1. 수련거리의 목적설정

명절쇠기 수련거리의 일반적인 목적은 청소년

들이 예절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련거리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가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수련거리의 실시기간 등을 고려하여 목적을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로 폭넓게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한다.

2. 단위활동의 선정

수련거리의 구체적인 목적이 설정된 후에는 그에 알맞는 수련거리의 내용, 즉 단위활동을 선정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단위활동은 크게 예절활동 8가지, 명절음식 만들기 활동 4가지, 공예품 만들기 활동 6가지, 명절놀이 활동 11가지 등이다.

1) 예절활동의 선정

예절활동으로 개발된 8가지 단위활동은 차례지 내기, 인사예절, 한복예절, 바른 몸가짐, 방문 및 영접예절, 다과예절, 친족관계도 그리기, 예절을 주제로 한 족홍연기이다. 단위활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절 활동 중에서 어떤 단위활동을 몇가지나 선정해야 할 것인가이다. 단위활동이 의도했던 효과를 충실히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청소년의 연령과 시간, 선수학습관계를 고려하여 예절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의 〈표 1〉은 예절활동에 속하는 단위활동들의 선수학습관계를 나타낸 것이고⁴⁾ 〈표 2〉는 각 예절활동별로 적절한 실시대상, 시기, 참고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팔호 안의 단위활동은 생략할 수 있으나 팔호 밖의 단위활동

4) 선수학습관계란 단위활동이 단위활동을 시작하는 데 전제가 되고 있어서 앞선 단위활동을 먼저 실시해야만 다음 단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 생략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표 1)

예절활동에 속하는 단위활동들 간의 선수학습관계

- ① 한복예절 --> 인사예절
- ② 한복예절 --> 바른 몸가짐
- ③ (한복예절) --> 인사예절 --> 차례지내기
- ④ (한복예절) --> 인사예절 --> 방문 및 영접예절

(표 2)

예절활동의 실시대상, 시기 및 참고사항

| 단위활동 | 대상 | 시기 | 참고사항 |
|-----------------|----------|-------|---|
| 차례지내기 | 중학생 이상 | 설·한가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남자 청소년에게 중요 ○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차례지내는 순서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론지도 |
| 인사예절 | 모든 청소년 | 관계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절과 평절을 중점지도 ○ 다른 부분은 간략한 이론지도 ○ 국민 학생 — 특히 평절을 중점지도 ○ 근로청소년 — 평절, 큰절 모두 중점지도 |
| 한복예절 | 모든 청소년 | 관계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생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특히 고름매는 법과 대님매는 법을 집중지도 ○ 근로청소년에게는 속옷입기 버선신기 등까지 상세히 지도 |
| 바른 몸가짐 | 모든 청소년 | 관계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고교생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중요 ○ 국민 학생 — 걷기, 앉기, 서기 중점지도 ○ 고등 학생 이상 — 걷기, 앉기, 서기 이외에 문열고 들어오고 나가는 법, 어른이 들어오실 때 반절하고 다시 앉기 등 첨가 |
| 방문 및 영접예절 | 모든 청소년 | 관계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도안의 대화내용을 성인들 간의 대화로 바꿈 ○ 직장에서의 방문 및 영접 예절도 가능 |
| 다과예절 | 모든 청소년 | 관계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청소년에게는 과일깎는 방법과 차 끓이는 방법을 별도로 지도할 수도 있음 |
| 친족관계도 만들기 | 고등 학생 이하 | 관계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학생에게는 5촌 이하의 친족관계를 중점지도 |
| 예절을 주제로 한 즉흥 연기 | 모든 청소년 | 관계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시기 및 대상에 알맞게 상황을 설정 ○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기 쉬운 상황을 설정 |

2) 기타 단위활동의 선정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명절쇠기 수련거리에 흥미를 가지고 볼 하기 위하여 예절활동 이외에도 명절음식 만들기 활동, 공예품 만들기 활동, 명절놀이 활동 등을 개발하였다. 예절활동 이외의 단위활동을 선정할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수련거리가 실시되는 시기와 가까운 명절에 관련된 단위활동을 선정하여 각 단위활동들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예절활동 이외의 단위활동은 수련거리의 실시기간과 대상에 따라 각 영역별로 고루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의 <표 3>은 각 영역별로 단위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대상 및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영역별 단위활동의 실시대상 및 시기

| 영 역 | 단위활동 | 대 상 | 시 기 |
|-------------|----------|-------------|-------|
| 명절음식 만들기 | 송편 만들기 | 중학생이상(여) | 추석 |
| | 타래과 만들기 | " | 관계없음 |
| | 밤까기 | 중학생이상 | 설·한가위 |
| | 문어오리기 | " | 설·한가위 |
| 공예품 만들기 | 연하장 만들기 | 모든 청소년 | 설 |
| | 복주머니 만들기 | 중고등학생 이상(여) | 설·한가위 |
| | 노리개 만들기 | 고등학생 이상(여) | 관계없음 |
| | 단오부채 만들기 | 중학생 이상 | 단오 |
| | 사각상자 만들기 | 국민학생 이상 | 관계없음 |
| | 편지함 만들기 | 국민학생 이상 | 관계없음 |
| | | | |
| 명절놀이 | 윷놀이 | 모든 청소년 | 설 |
| | 투호놀이 | 모든 청소년 | " |
| | 제기차기 | 특히 국민학생 | " |
| | 줄당기기 | 모든 청소년 | 대보름 |
| | 석전놀이 | 중학생 이하 | " |
| | 놋다리 짖기 | 국민학생 | " |
| | 그네 | 모든 청소년 | 단오 |
| | 널뛰기 | " | " |
| | 씨름 | " | " |
| | 가마싸움 | " | 한가위 |
| | 강강수월래 | " | " |

3. 단위활동의 조직

수련거리를 구성하게 될 단위활동의 선정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단위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로 예절활동은 조용하고 신중한 분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후시간보다 오전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명절쇄기 수련거리의 목적이 예절수양을 위한 것이므로 예절활동을 우선적으로 오전시간에 배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예절활동 중에서도 즉흥연기 활동은 다른 예절활동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선호도도 높고 오락성을 띠고 있으므로 오후시간에 배치하여도 좋다.

둘째로 예절활동 이외의 영역에 속하는 단위활동은 주로 오후시간에 배치하되 경우에 따라서 오전시간에 배치할 수도 있다. 명절음식 만들기, 공예품 만들기, 명절놀이 등의 영역에 속하는 단위활동은 청소년들의 태도와 운동량, 적극성의 정도, 계절과 날씨, 식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다.

셋째로 각 단위활동 사이에 시간적 여유를 두어 하루 동안에 무리하게 많은 단위활동을 선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식사시간 이후 바로 단위활동을 시작하기 보다는 약 30분간 레크레이션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크레이션 시간은 단위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산만한 분위기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단위활동을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참가한 청소년들 중 몇 명을 보조지도자로 교육시킬 수도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다.

4. 수련거리의 실시

1) 수련거리의 실시 준비

(1) 홍보활동

계획했던 수련거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수련거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2) 수련활동을 위한 자료제작

청소년들을 수련거리가 의도하는 경험의 세계로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위한 단위활동 지도안,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그 밖에 패도, 사진, 기타 시청각 자료 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단위활동 지도안은 수련활동 내용과 시간배분을 제시해놓은 것으로서 지도자는 사전에 지도안을 상세히 검토하고 지도내용을 익혀두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단위활동 이외에 다른 단위활동이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상세한 지도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는 명절쇄기 수련거리의 목적, 활동내용, 일정표, 각 단위활동의 참고자료, 준비물 등을 알리는 책자로서 수련거리를 위한 일종의 참고자료이다. 특히 각 단위활동의 참고자료에는 단위활동의 의의, 활동내용 및 방법 등을 간단히 소개하여 지도자가 그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지도자 선정

명절쇄기 수련거리를 주최하는 기관의 상임지도자이든 초빙강사든 간에 지도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도안에 가장 충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여러가지 정보를 통하여 지도를 맡아줄 사람을 찾은 후에는 반드시 계획된 지도안을 가지고 활동내용을 설명한 후, 지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지도자로 확정하도록 한다.

(4) 보조지도자 활용 계획

보조지도자란 지도자를 도와 수련활동을 진행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보조지도자의 역할은 개별지도 혹은 소그룹 단위의 지도가 필요할 때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도내용을 시범지도함으로써 수련활동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돋는 일이다. 명절쇠기 수련거리는 개별지도 혹은 소그룹 단위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단위활동이 많기 때문에 보조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조지도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서 수 명을 선정하여 미리 지도한 후에 보조지도자의 역할을 맡길 수 있다. 그들을 미리 지도하기에 적절한 시간은 레크레이션시간 혹은 휴식 산책시간이다. 어떤 방법으로 보조지도자를 활용하든 간에 사전에 보조지도자의 역할을 정하고 훈련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2) 실시과정에서 유의할 점

(1) 이론과 실기의 조화

여기에서 이론이라 함은 해당 단위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말한다. 이론과 실기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지도가 청소년의 수용태도와 무관하지 않고 실습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자율적인 활동 유도

지도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수련활동을 진행시켜나가기 위해서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수련활동 자체에 열중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자율적으로 해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론지도 부분에서도 질문이나 발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수련거리 내용의 일관성 유지

이 연구에서 개발된 명절쇠기 수련거리는 각각의 단위활동들이 그 자체로서도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단위활동과의 상호보완관계 속에서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각 단위활동이 서로 일관성을 가지고 실시되기 위해서는 단위활동 선정과정에서 단위활동 간의 연관관계는 물론, 실제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도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각 단위활동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도록 한다. 또한 레크레이션 시간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각 단위활동과 조화를 가지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명절과 관계있는 노래, 읊반, 게임 등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평가활동

평가활동은 계획했던 수련거리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련거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보를 축적해 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평가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수련거리 자체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수련거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수련거리를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한 평가이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의 주체에 따라 세 가지의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1) 명절쇠기 수련거리 평가회의

이 회의는 수련거리를 주최하는 데 관련된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로서 수련거리 전반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겨 다음에 실시될 수련거리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토론하고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수련거리의 목적설정이 적절하였는가?
 - 수련거리 목적설정에서 청소년들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수련거리의 실시결과, 계획 단계에서 설정되었던 목적을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 ② 단위활동의 선정 및 지도안 집필이 적절하였는가?
 - 각 영역별로 선정된 단위활동의 수는 적절하였는가?
 - 각 영역 내에서 단위활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선호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단위활동이 네 가지 영역에서 고루 선정되었는가?
 - 각 단위활동의 지도안이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게 변형되었는가?
 - 단위활동의 선정 및 지도안 집필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한 인사는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 단위활동의 선정 및 지도안 집필과정에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 ③ 단위활동의 조직이 적절하였는가?
 - 각 단위활동 간의 선수학습 관계가 고려되었는가?
 - 다음에 실시될 수련거리에서 단위활동의 조직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
 - 단위활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

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 ④ 수련거리의 실시과정이 적절하였는가?
 - 홍보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앞으로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인가?
 - 각 단위활동이 계획된 시간 내에 완료되었는가?
 - 계획된 지도안의 내용 중에서 보완 혹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 보조자료들은 충분하였는가, 보충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 각 단위활동의 지도자 선정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 각 단위활동에서 보조지도자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였는가?
 - 보조지도자(혹은 조장)의 훈련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는가?
 - 각 단위활동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태도는 어떠했는가?

2) 초빙강사의 평가

초빙 강사가 수련거리 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상의 난점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에 임하게 될 경우 평가가 피상적인 지적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초빙강사 자신이 담당한 단위활동에 관해서는 수련거리를 주최한 사람들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초빙강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기록지를 받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수련거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지도를 담당하였는가?

- ② 사전에 지도안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③ 지도안의 내용이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생각하는가?
- ④ 각 단위활동을 계획된 시간 내에 충실히 실시할 수 있었는가?
- ⑤ 지도안의 내용 중에서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가?
- ⑥ 청소년들이 지도내용을 충분히 익혔다고 생각하는가?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가질문지 조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가질문지는 수련거리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수련거리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익하였는가, 수련거리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익혔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평가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 ① 수련거리의 일정이 힘들지 않았는가?
- ② 각 단위활동이 얼마나 유익했다고 생각하는가?
- ③ 각 단위활동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익히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가?
- ④ 보조지도자(조장)으로 활동하였는가?
- ⑤ 보조지도자의 역할이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IV. 명절쇄기 수련거리의 모형 : 여자고등학생을 위한 모형

1. 대상

이 모형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2박 3일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명

절쇄기 수련거리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겨울방학에 실시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여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 수련거리로 입학시험에 끝난 후 졸업하기 전까지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 목적

이 모형은 설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사예절, 한복예절, 손님접대와 같이 정초에 필요한 생활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고등학생이라면 이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예절을 충분히 익히고 있어야 할 연령이다. 그러나 평소에 한복을 자주 입지 않기 때문에 한복을 입는 방법이나 한복을 입었을 때의 몸기침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절하는 방법,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 등 일상적인 예절도 정확하게 익히고 있는 청소년이 드문 형편이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특별히 설날에 지켜야 할 예절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생활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3. 단위활동의 선정

1) 예절활동 : 이 모형에서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예절활동 중에서 차례지내기를 제외한 한복예절, 바른 몸기침, 인사예절, 방문 및 영접예절, 다과예절, 친족관계도 그리기, 예절을 주제로 한 즉흥연기가 선정되었다. 이 모형에서 선정된 예절활동은 모두 7가지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기에는 너무 여러가지가 선정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하는 청소년이 고등학생이므로 성실한 태도로 참여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기타 단위활동 : 예절활동 이외의 영역에서

는 타래파 만들기, 연하장 만들기, 웃놀이, 투호 놀이 등의 4가지 단위활동이 설정되었다. 이 모형은 겨울방학 동안에 실시될 것이므로 4가지 단위활동을 모두 설과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선정하였다.

4. 단위활동의 조직

1) 단위활동의 배치

예절활동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오전시간에 배치한다. 그 중에서도 선수학습관계를 고려하여 한복예절, 바른 몸가짐, 인사예절을 둘째날의 오전시간에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 방문 및 영접예절 활동과 다과예절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즉홍연기 활동은 예절지도를 위한

것이면서도 오락성을 띠고 있으므로 집중력이 멀어지는 밤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예절활동 이외의 단위활동들은 기온과 장소, 집중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기타 생활시간의 배치

2박 3일 중에서 첫째날 오전과 마지막 날의 오후에는 도착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귀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단위활동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사시간이 끝난 후에는 약 30분간의 레크레이션시간을 두어 지도자들이 다음 단위활동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청소년들은 산만한 분위기를 정돈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위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단위활동을 조직하게 되면 다음의 <표 4>과 같은

(표 4)

여자 고등학생을 위한 모형의 일정표

| 시간 | 첫 째 날 | 둘 째 날 | 셋 째 날 |
|----|-----------|----------------|---------------|
| 7 | | 기상·세면·산책·체조 | 기상·세면·산책·체조 |
| 8 |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 9 | | 레크레이션(노래) | 레크레이션(노래) |
| 10 | | 한복예절 | 방문 및 영접예절 |
| 11 | | 바른 몸가짐 | 다과예절 |
| 12 | | 인사예절 | 평기를 위한 질문지 조사 |
| 1 |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 2 | 도착 | 레크레이션(게임) | 정리활동 |
| 2 | 일정 및 생활안내 | | 출발 |
| 3 | 환영의 시간 | 투호놀이 | |
| 4 | 친족관계도 그리기 | | |
| 5 | 웃 놀이 | 타래파 만들기 | |
| 6 | 저녁식사 | 저녁식사 | |
| 7 | 레크레이션(노래) | 산책 및 휴식 | |
| 8 | 연하장만들기 | 예절을 주제로 한 즉홍연기 | |
| 9 | | | |

일정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V. 단위활동의 사례 : 한복예절

1. 한복의 유래와 특색

한복은 우리민족의 생활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옷으로 우리문화의 상징이다. 한복은 아시아의 동쪽 추운 지방의 산과 들에서 말을 타고 수렵을 하며 살던 우리민족이 입기 시작했던 옷이다. 따라서 활동적이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의 모양으로 위와 아래가 떨어진 바지와 저고리가 기본이 되어 온몸을 둘러싸서 입었다. 시대가 변천하

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한복의 모양도 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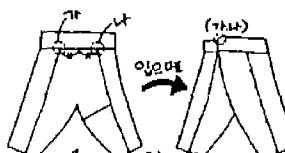
한복은 우리 몸에 잘 어울리고, 입어 편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다. 한복은 양장처럼 무늬 선이 드러나기 보다는 옷의 선이 강조되는 특징을 갖는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그 빛깔, 입는 이의 나이와 몸매, 얼굴 빛, 몸짓, 그리고 입고 나가는 때와 자리에 따라 다르다. 세월이 지나오면서 지금은 남의 옷인 양복이 일상화되고 한복이 서먹해졌지만, 아직도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이나 집안의 혼인, 환갑 등의 잔치에서 온 집안 식구가 모두 한복을 입는다. 다음은 구체적인 한복예절 지도안이다.

2. 지도안

- 시간 : 1시간
- 준비물 : 한복, 버선, 패도(한복의 명칭, 버선 신은 모양)

(남자 청소년용)

| 과정 | 지도 내용 | 수련 활동 | | 비고(자료, 준비물, 유의점) | 시간(분) |
|------|---|--|---|---|-------|
| | | 청소년 | 지도자 | | |
|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활동내용의 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한다 ◦ 조용히 듣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을 확인한다 ◦ 활동의 의미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을 입은 상태에서 참여한다. | 5분 |
| 이론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의 옷차림과 특징 ◦ 한복의 유래 ◦ 한복의 명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나누어준 자료를 참고로 설명을 듣는다. ◦ 듣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히 설명한다. ◦ 패도를 보고 설명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 장 참고 ◦ 지도안의 앞 부분 참고. ◦ 패도 | 20분 |

| 과 정 | 지 도 내 용 | 수 련 활 동 | | 비고(자료, 준비물, 유 의점) | 시 간 (분) |
|--------|---|---|--|--|---------------|
| | | 청소년 | 지도자 | | |
| 실 기 | ①바지입기 - 작은 사폭이 원쪽으로 오게 한다. - 바지허리는 작은 사폭을 위로 오게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히 따라 한다. ◦ 확인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명을 테리고 정확히 시범지도한다. ◦ 작은 사폭이 원쪽으로 왔는지를 확인시킨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의 속옷은 내 의와 속고의를 입지만 요즘은 속고의를 잘 입지 않으므로 속옷입기는 생략한다. | 30분 |
| | ②대님매기 보고서(사진참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띠를 맨다. ◦ 허리띠를 풀어 다시 맨다. ◦ 시범지도를 지켜 본 후 따라한다. ◦ 풀어서 다시 대님을 맨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사폭을 위로 오게 접어서 허리를 매어준다. ◦ 허리띠 매는 방법을 반복한다. ◦ 대님을 맨다. ◦ 다시 한번 반복한다. | | |
| | ③저고리 입기 - 동정녀 맞추기 - 고름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도를 따라 한다. ◦ 고름을 풀어 다시 맨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고름 매는 법을 한동작씩 시범지도한다. ◦ 3~4번 반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름 매는 법은 여자의 한복과 같다(뒤의 그림 참고) | |
| | ④조끼와 마고자 입기 - 마고자 단추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끼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끼를 입은 다음 마고자를 입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고자 단추기우는 법을 시범지도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한복의 평상복차림은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까지이다. | |
| | ⑤두루마기 입기 - 저고리와 같은 방법으로 입고 외출시에는 방한용 목도리를 매기도 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시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두루마기를 꼭 입어야 예외에 맞는 것임을 강조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루마기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생략한다. | |
| 정 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또는 대답 한다. ◦ 인사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금한 점이 있는지 질문한다. ◦ 인사한다. | | 5분 |

- 시간 : 1시간 10분
- 준비물 : 한복, 버선, 노리개, 버선, 패도(한복의 명칭)

(여자 청소년용)

| 과 정 | 지 도 내 용 | 수 련 활 동 | | 비고(자료, 준비물, 유 의점) | 시 간 (분) |
|------------------|---|--|--|---|--|
| | | 청소년 | 지도자 | | |
| 도 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활동내용의 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한다 ◦조용히 듣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을 확인한다 ◦활동의 의미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복을 입은 상태에서 참여한다. | 5분 |
| 이 론 지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절의 옷차림 ◦한복의 유래와 특징 ◦한복의 명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리 나누어준 자료를 참고로 설명을 듣는다. ◦듣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히 설명한다. ◦패도를 보고 설명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2장 참고 ◦지도안 앞 부분의 설명 참고. ◦패도 | 20분 |
| 실 기 지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속옷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바지 – 속치마 – 속적삼 ②치마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자락이 원쪽으로 오도록 입니다. – 치마끈이 저고리 밑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③저고리 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정녀 맞추기 – 고름매기 : 동정녀를 맞춘 다음 겉고름을 맨다. 고름길이가 4 ~5cm정도 차이가 나면 멋스럽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을 듣는다. ◦확인하고 고쳐 입는다 ◦시범지도를 따라 한다. ◦반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리 속바지와 속치마, 속적삼을 한 벌씩 준비하여 입는 순서를 시범지도 한다. ◦치마입는 방법을 시범지도 한다. ◦고름매는 순서를 한 동작씩 시범지도 한다. ◦3~4번 반복지도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즈음에는 한복의 속옷을 잘 갖추어 입지 않으나, 속치마와 속바지는 반드시 입어야 함을 주의 시킨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분 10분 |

| 과 정 | 지 도 내 용 | 수 련 활 동 | | 비고(자료, 준비물, 유 의점) | 시 간 (분) |
|--------|----------|---|-------------------------------------|--|---------------|
| | | 청소년 | 지도자 | | |
| 실 | | | | | |
| 기 | ④ 버선신기 | 수눅이 중앙을 마주보도록 신는다. 시접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다. | ◦버선을 신는다 ◦체도를 보고 버선 신는 방법을 설명한다. | ◦체도 | |
| 지 | ⑤ 모양내기 | - 진동선 정리 - 깃고대와 어깨솔기를 약간 앞으로 숙임 - 치마 허리가 저고리 밑으로 보이지 않게함 | ◦한 동작씩 따라 한다. ◦한 동작씩 시범지도를 한다. | ◦한 동작씩 시범지도를 한다. ◦입은 모양을 확인하고 고쳐준다. | |
| 도 | ⑥ 노리개 달기 | 노리개에 고리가 있을 때는 고름 코를 들고 긴고름에 고리를 걸고, 끈고리일 경우에는 긴고름에 끼워 넣고 고름을 맨다. | ◦시범지도를 자세히 본다. | ◦시범적으로 노리개를 달아본다. ◦전체에게 노리개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시범적으로 달아본다. | 10분 |

| 과 정 | 지 도 내 용 | 수 련 활 동 | | 비고(자료, 준비물, 유 의점) | 시 간 (분) |
|------------------|--|-------------------------|-----------------------------|-------------------------|---------------|
| | | 청소년 | 지도자 | | |
| 실 기 지 도 | ⑦ 신발신기 신발은 고무신을 신어야 잘 어울리며 걸음걸이도 우아해서 맵시가 난다. | ◦신발을 신어 본다. | ◦시범을 보인다. | | 10분 |
| 청 리 | ◦질의 응답 | ◦질문 또는 대답 한다. ◦인사한다. | ◦궁금한 점이 있는지 질문한다. ◦인사한다. | | 5분 |

참 고 문 헌

강무학(1982), 한국세시풍속기, 서울 : 동호서판.

_____ (1990), 한국세시풍속기, 서울 : 집문당.

강인희(1991.1), “경기지방의 설상차림”, 고국소식.

_____ (1991.6), “오월 단오날의 절식, 준치국과 수리취떡”, 고국소식.

_____ (1991.9), “추석의 풍속과 차례상 차림”, 고국소식.

고국소식편집부(1992.2), “지방은 이렇게 씹니다”, 고국소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81), 한국민속대관 : 세시풍속.전승놀이 4, 고려대학 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복남(1987), 한국 의복의 유형과 양식, 서울 : 집문당.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민속학연구실 (1988), 조선의 민속놀이, 서울 : 푸른숲.

권영빈 역(1989), 호이징하 지음, 놀이하는 인

간, 서울 : 기린원.

권명득(1991.12), “올바른 제사 모시기”, 고국소식.

_____ (1992.1), “설의 세시풍속과 차례지내기”, 고국소식.

_____ (1992.2), “올바른 정초예절”, 고국소식.

김광억(1988), “조상숭배와 사회조직의 원리 – 한국과 중국의 비교 –”, 민족과 문화, 서울 : 정음사.

김기호(1990), “민속에 나타난 건강관념”, 민속학회 편, 가면극.세시풍속.산육 속.

김동구 외 2인(1991), 한국민속학, 서울 : 새문사.

김득중 외 2인(1991), 우리의 전통예절, 서울 : 문화재보호협회.

김명자(1990), “세시풍속의 순환의미”, 가면극.세시풍속.산육속, 서울 : 교문사.

김명희(1991.8), “제대로 입은 한복”, 고국소식.

- 김성구(1987), 한국의 세시풍속, 서울 : 명문당.
- 김성배(1980), 한국의 민속, 서울 : 집문당. 김성원
(1987), 한국의 세시풍속, 서울 : 명문당.
- 김용숙(1991.8), “올바른 절의 예절”, 고국소식.
- 김인곤(1985), 예절.도의, 서울 : 문우사.
-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1989), 동아세계대백과사
전 제 3 권, 서울 : 동아출판사.
- 문화부, 전통놀이 모음집.
- 박경자 외 1인(1988), 禮論, 서울 : 성신여대출판부.
- 박명윤 외(1991),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
발방향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원. 박천환, 우
리의 전통예절, 서울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深作光貞, 신영선 역, 衣의 문화인류학, 서울 : 교
문사.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1991.6), 청
소년민속제,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 손경자(1991.6), “시원하고 청초한 모시치마 저
고리”, 고국소식.
- 손인수(1984),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서울 :
민음사. 송석우(1985)., “민속학은 무엇인
가”, 최철.설성경 옆, 민속의 연구, 서울
: 정 음사.
- 신안문화원(1989), 세시풍속기.
- 심우성(1988), “살아있는 새로운 전통문화의 실
체”, 임광진 편, 생활문화프로그램, 서울
: 정음사.
- 임기원(1986), 어린이 전통예절, 서울 : 거암.
- 예지원, 예지, 제 8호(89. 10), 제 9호(90. 9),
제 10호(91. 9).
- 오장현 외 2인, 민석놀이 지도자료, 서울 : 삼일각.
- 유세안(1991.6), “풍류와 음식”, 열과 문화.
(1992.1), “세찬 이야기”, 열과 문화.
- 유안진(1981), 한국고유의 아동놀이, 서울 : 정민사.
- 유재천(1988a), “생활과 문화”, 임광진 편, 생활
문화프로그램, 서울 : 정음사.
- _____ (1988b), “지금 생활문화는 어떠한가?”,
임광진 편, 생활문화프로그램, 서울 : 정음
사. 이강렬(1990), 민속과 축제, 서울 : 원
방각.
- 이강로(1988), 세시민속과 민속놀이, 서울 : 세종
대왕기념사업회.
- 이동길(1992.1), “새해의 덕담”, 열과 문화.
- 이사현 외 2人(1991), 한국민속학 개설, 서울 :
일조각이영 김미령(1990), 발달적 접근방
법에 의한 종일제 영 유아 교육프로그램,
서울 : 양서원.
- 이사현(1991), 한국민속학개설, 서울 : 일조각.
- 이중한(1988), 문화프로그램자료집, 서울 : 정음사.
- 임동권(1989), 한국민속문화론, 서울 : 집문당.
- 임동권(1989), 한국세시풍속연구, 서울 : 집문당.
- 임재해(1991),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서울 :
지식산업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1990), 교사용특별활동지침
서, 서울 : 미래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91.6, 92.1), 우리교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91.1, 91.2, 91.3), 우리교육.
- 전례연구위원회(1992), 우리의 생활예절, 서울 :
성균관.
- 정양완(1992.1), “따스한 정을 나누는 세배의 자
리”, 고국소식.
(1991.4), “식사할 때의 마음가짐.몸가
짐”, 고국소식.
- 정정완(1992.1), “격식에 맞는 한복차림”, 고국
소식.
- 조채희(1991.4), “정월의 세시풍속—대보름—”,
우리문화.
- _____ (1992.1), “송구영신의 풍속”, 열과 문화.
- 주월영(1974), 예볍사전, 서울 : 수학사.
- 지교현(1989), “경로.효친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 그 현대적 의의”,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편,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91), 청소년 야영활동 프로그램집.
- 체육청소년부(1991), 청소년수련활동사례집.
- _____ (1991),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체육청소년부.
- 최민홍(1983), 한국윤리사상사, 서울 : 성문사.
- 최상수(1988), 한국민속놀이의 연구, 서울 : 성문각.
- 최철 설성경 역(1985), 민속의 연구(I)(II), 서울 : 정음사.
- 충청남도(1991), 충청인의 생활예절, 충청남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7), 한국의 축제, 서울 : 문화예술진흥원.
-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1991), 한국민속대사전 1.2, 서울 : 민족문화사.
- 한국보이스카웃연맹(1991.3月), 보이스카웃.
- 한국여성교양학회(1992), 생활예절, 서울 : 양서원.
- 한국일보 편(1990), “당신의 에티켓 백과－신예 기－”, 서울 : 한국일보사.
- 한국일보사(1990),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上”, 서울 : 한국일보사.
- 한국전례연구원, (월간)실천예절, 1985.9. 제1집 ~1988.2. 제31집, 1988.3. 제32~1990.2. 제51집, 서울 : 중화서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제 1~19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87),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백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연맹, 누리의 세계 : 누리-11-1.
- 한국청소년연맹(1985), 누리활동자료 : 특별활동용.
- 한국청소년연맹(1991), 누리활동지도서.
- 한국청소년연맹(1991), 아람활동지도서.
- 한국청소년연맹(1984), 우리는 아람 : 아람-1-2.
- 한국청소년연맹(1986), 아람활동사례집 : 아람 13-2.
- 한국청소년연맹(1986), 한별활동 사례집, 한별 3-2.
- 한국청소년연맹(1987), 한별활동 지도자료 : 특별 활동용.